

곳곳에서 사회와 국가를 움직여 온 불심

⑥ 대불련이 배출한 각계 인사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大佛聯)가 2013년 창립 50년을 맞는다. 1963년 창립된 대불련은 대학생 불교단체로 그동안 배출된 동문만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대불련 출신 동문들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해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중심세력'의 하나로 성장했다. 대불련 50년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불련 출신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치계

19대 총선 앞두고 저마다 출사표

정치계에서는 19대 총선을 앞둔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서울대 67학번)를 빼놓을 수 없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중학생 시절인 1960년대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직접 불교관련 책을 찾아 읽고 법문을 들으며, 3000배, 참선 등 실참실수하는 생활을 목표로 익혔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김영삼 정부 당시 정치와 연을 맺어 정책기획수석을 지내면서는 청와대 불자모임인 청불회를 만들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2006년부터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신당 국민생각을 창당해 대표로 4월 총선을 준비 중이다.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의대 69학번)도 눈길을 끈다. 안 의원은 할머니를 통해 불교를 접했다. 안 의원은 대학시절 부산지역 대불련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를 6년 만에 되살려 정각회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현재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19대 총선에서 경남 마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 중이다.

이밖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한 성재도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부산대 76학번)은 대불련 부산지부장, 6월 민주항쟁 불교대표 상임집행위원, 청와대불자회 사무국장 등 활발한 불교활동을 펼쳤다. 현재 19대 총선 경남 진주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 중이다.

여익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장(동국대 67학번)은 제16대 대선 당시 불교계 인사로 노무현 후보의 문화특보를 맡기도 했다. 여 소장은 민청학련 사건 당시 5차례 수감되기도 했다. 81년 대불련 사무총장, 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을 지내며 재가불교 사회운동의 대부역할을 했다. 현재 한국 남동발전 감사다.

중앙대 재학 당시 대불련을 통해 불교계 민주화운동에 나선 최연 정의평화불교연

대 공동대표(중앙대 74학번)도 있다. 최연 대표는 1980년 대불련 대의원회 의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 불교문화연구원장으로 19대 총선에서 용인 처용 지역 출마 예정 중이다.

이윤부 前 문화부 중무실장(동국대 64학번)은 재임 시절 중앙승가대를 정식 대학 설립 인가를 받는데 큰 공헌을 하는 등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재학 시절 대불련 창립에도 기여했다.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사찰문화연구원 고문 등을 맡고 있다.

김영국 前 민주통합당불교특위위원장은 대불련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김 前 위원장은 조계종 제32대 집행부에서 총책특보를 맡기도 했다. 현재 민주통합당불교특위위원장을 맡았지만 조계종과의 관계로 인해 탈당할 상태다.

법조계

주요보직 맡아 승가 외호 앞장 서

법조인에는 김동건(서울대 65학번) 법무법인 바른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사시 11회 출신으로 제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등 굵직한 자리를 두루 거쳤다.

법조인 불자모임인 서초반야회장을 지내며 불자법조인들을 이끌었다. 현재 불교포럼 상임대표를 맡아 불자네트워크의 중시역할을 하고 있다.

법불회 법조인은 정창렬(서울대 61학번) 법무법인 한덕 대표 변호사와 박준수 변호사가 있다. 전 변호사는 10·27법안 당시 스님들을 삼정교육대로 보내려는 군부를 설득해 스님들을 흥국사에서 자체적으로 참선 수행하도록 완화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준수 변호사(서울대 61학번)는 법조인으로서 불자 법조인을 위한 신행조직 '자각터'를 만들어 신행활동을 이끌었다.

이 밖에 박홍우 의정부지방법원장(서울대 72학번)은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에서 연수생들을 지도했으며 현재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불광사 불광장학회 이사,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동문회장 등을 맡고

대불련 총동문회 주요 인사 (학번순)



소속	학번	이름	소속	학번	이름
정치·법조계	서울대 61학번	전창렬 법무법인 한덕 대표	학계	동국대 60학번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
	서울대 61학번	박준수 변호사		서울대 61학번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서울대 65학번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		동국대 65학번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서울대 67학번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		동국대 67학번	조용길 동국대 명예교수
	부산의대 69학번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마산 예비후보		서울대 68학번	김효을 인천대 교수
	서울대 72학번	박홍우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대 68학번	배광식 서울대 치대 교수
	서울대 74학번	이기범 변호사		동국대 68학번	곽만연 동아대 교수
	중앙대 74학번	최연 민주통합당 용인 처용 예비후보		경상대 70학번	김상현 동국대 교수
	부산대 76학번	성재도 민주통합당 경남 진주 예비후보		한양대 70학번	전보실 만해기념관장
	부경대 77학번	이영호 민주통합당 해남연도신도 예비후보		서울대 71학번	신병철 동국대 교수
경제계	서울대 61학번	명호근 신기이엔티(주) 회장		고려대 72학번	김복순 동국대 교수
	서울대 61학번	신호철 이태 에너지 고문		성신여대 72학번	여순아 성신여대 교수
	부산대 61학번	육지영 GG텔레콤 대표		외국어대 73학번	성기서 서울대 국장
	고려대 61학번	이재정 청양물류 대표		전남대 73학번	조기정 목포대 교수
	한양대 64학번	최인식 신화교육 대표		성신여대 74학번	김여주 성신여대 교수
	중앙대 64학번	황기철 주식회사 전용 전문		성신여대 74학번	최은숙 프랑스 루이비통대학 교수
	서울대 66학번	윤제철 삼성생명법인 고문		전북대 75학번	한광수 우석대 교수
	동국대 67학번	여익구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경북대 76학번	박경희 수원과학대 교수
	경상대 70학번	백효을 북경현대자동차 사장		강원대 79학번	김경진 충주대 교수
	중앙대 70학번	서성대 인티를 대표	언론·문화·종교계	서울대 63학번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명지대 70학번	이정우 실크리브 컨트리 클럽 이사		고려대 81학번	김자수 동아일보 보도본부장
	서강대 70학번	하금규 미청개발 대표		고려대 86학번	소중섭 시사저널 편집장
	서울대 72학번	김영진 선재의원 원장		대불련 지도법사	정토회 지도법사 범연 스님
	서울신대 74학번	최성규 정도종합건설 대표		동국대 63학번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서울대 75학번	이중기 리퀴움 숙박물관 관장		중앙대 79학번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동국대 77학번	이희선 출판 미술하우스 대표		동국대 68학번	박찬수 목야박물관장
				전북대 71학번	최이곤 천지아트 대표

있다. 최근에는 대불련 출신인 이기범 변호사(서울대 74학번·사시 25회)가 2011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서 퇴임해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마련했다.

경제계

현대기아차 등 사회 각분야 활발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총재(서울대 61학번)는 서울대 법대 61학번 대학시절 법대 불교학생회 법불회 활동을 하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창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졸업 후 서울대 총불교학생회를 설립했으며,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초대 동문회장을 역임했다. 명 회장은 쌍용양회 대표이사 사장 및 부회장, 한국양회공업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신기이엔티(주) 회장이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이태 에너지 고문을 맡고 있는 신호철(서울대 61학번) 고문은 대불련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대불련 출신 중 경제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백효을 북경현대자동차 사장(경상대 70학번)이다. 중국에서 현대차 열풍이 이어진 데는 북경현대자동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전역의 현대차 판매망을 이끌고 있는 백효을 사장은 1977년 현대차에 입사해 자동차 영업에서 신화를 써온 인물이다. 백효을 사장은 대학시절 대불련 중앙회 부회장 직책을 맡은 바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유신 정국 속에 화랑대회를 개최를 추진하기도 했다. 또 윤제철(서울대 66학번) 삼정 회계법인 고문은 현재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학계

대불련 동문 최다 분포

학계는 대불련 총동문회 회원 중 가장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학창시절 대불련 활동이 불자 지도교수와와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이다.

최근 본각연구원을 개원한 고준환 경기대 종신명예교수(서울대 61학번)는 대불련 학계 1세대다.

고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대 1학년 때 당시 조계종 중정 청담 스님의 마음법문에 감화돼 불교에 귀의해 법불회 활동을 하며 대불련 창립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동아일보 기자로 1974년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 실천에 나서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고 명예교수는 졸업 후 10년 만에

다시 전공서적을 펴고 공부를 재개해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해 교수의 길을 걷는다. 30년 교수 생활에도 고 교수의 불교사랑은 계속돼 1988년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창립, 초대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불교 '청년화'와 '지성화'에 기여했다.

치과 보존학의 국내 권위자인 배광식 서울대 치대 교수(서울대 68학번)도 대불련 출신이다. 서울사대부고 보리회와 대불련 서울지부 연구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포교사회 회장, 불이회 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순아 성신여대 교수(성신여대 72학번)는 1973년 성신여대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자신이 창립한 성신여대 불교학생회의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이밖에 48세 나이로 최연소 총장이 대화제가 되기도 했던 성기태 전 총주대 총장은 동국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대불련 11년차 회장을 역임했다.

언론계

파사현정 구현 앞장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서울대 63학번)은 서울대 법대 재학 당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초기 멤버로 구도부에서 활동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나와 1971년 외무고시에 합격 후 외교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이후 KBS '심야토론', EBS '하나뿐인 지구' 등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불교방송(BBS) 사장 등을 거쳐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고려대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 김자수 동아일보 보도본부장(고려대 81학번)과 소중섭 시사저널 편집장(고려대 86학번)도 있다.

종교·문화예술계

동문회 활동 중심 출가로 이어져

관음종 총무원장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도 맡고 있는 홍파 스님(동국대 63학번),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을 역임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중앙대 79학번)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목조각장 중요무형문화재로 경기 여주 목야박물관장으로 있는 박찬수 관장(동국대 68학번), 최이곤 천지아트 대표(전북대 71학번) 등이 대불련 활동을 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집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헤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